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한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독립성 훼손 우려” 목소리

데이터 3법 개정·입법 과제 세미나

데이터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된 형태로 출범했지만 정부의 대통령령 안에서 시행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전문 교수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미국, 일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명정보를 잘못 처리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벗어나면 5년 이상 형사 처벌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명정보의 잘못된 처리로 검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 3법 통과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 데 이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제공할 때 재식별하지 않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데, FTC가 이를 잘 이행하는지 판단까지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형사법 처리에 있어 가명처리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해줘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에 대해 하나의 기준과 세분화된 규정을 마련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처리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태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가명처리는 '1사람을 의미하는 정보를 2사람 이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19대 대통령이라고 하면 1사람이 되지만 19대를 빼면 12명이 돼 더 이상 1사람이 아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식으로 제한적인 식별자 제거로는 불충분하며, 우리나라에는 맥락으로 만들어 경우의 수를 2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며 "산업별로 다 시 가명처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에서 가명처리인지 아닌지 인정해주고 이를 통해 유권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조치를 통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더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개인정보와 건강, 의료,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 사이의 차이가 없어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기업이 가명처리를 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여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여러 전문기관이 어떻게 협력을 할지 시행령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플랫폼을 만들어 하나의 처리기관에 올리고, 이 기관이 다른 곳과 연계해 해결해주던지 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이 산업별로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에는 개인정보로 보던 기기 식별 정보, IP 주소를 현재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가명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드라마 열풍에 북한학과 '재조명'

(사랑의 불시착)

남북 관계 따라 관련 학과 희비 '사랑의 불시착' 흥행으로 주목 동국대 북한학과 등 명맥 유지

남북 관계에 따라 희비를 보였던 북한 관련 학과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최근 종영한 '사랑의 불시착'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의 월북 이야기를 담았다.

18일 진학사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부터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폐지되거나 유사학과인 정치외교학과 등으로 통폐합되는 등 국내 대학의 북한 관련 학과는 남북 정치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명지대, 가톨릭관동대, 선문대, 조선대 등에 있던 북한 관련 학과가 유사학과로 통폐합된 게 그 사례다.

지난해엔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북한 관련 학과의 지원도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대입 경쟁률로 드러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북한 관련 학과는 동국대 북한학과다. 1994년 국내 대학 최초로 북한학과 명칭으로 설립한 이후 수많은 북한 연구

〈북한 관련 학과 정시모집 경쟁률〉

(자료=진학사·각 대학)

대학/학과	구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동국대 북한학전공	모집정원	5	5	5	7	7
	지원자 경쟁률	30	47	35	46	59
고려대(세종)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모집정원	26	25	25	25	14
	지원자 경쟁률	177	192	165	170	92
		6.81:1	7.68:1	6.6:1	6.8:1	6.57:1



tVN 주말극 사랑의 불시착. /뉴스1

자를 양성해와 북한학 분야 선구자이자 이 분야 독보적인 학과로 꼽힌다.

동국대 북한학과 역시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2017학년도 정시 경쟁률 6.57대 1, 2018년 7대 1, 2019년 9.4대 1로 인기가 높아지다, 2020년엔 경쟁률이 6대 1로 다시 떨어졌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다 안개 속 같은 북미관계 상황이 더해지면서 인기가 주춤했다.

하지만 동국대 북한학과는 학과가 속한 사회과학대 8개 학과 중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 인문계

수험생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공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북한 관련 학과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통일외교안보전공역시 학령 인구 감소 추세 속에 2019학년도 7.68대 1의 경쟁률이 2020학년도 6.81대 1로 떨어졌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에서는 공공정책대학 내 6개 전공 중 통일외교안보전공 경쟁률이 가장 높다.

2021학년도 동국대와 고려대 대입 전형계획에 따르면, 동국대 북한학과는 총 15명을 선발하고, 고려대는 수시에서만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25명, 정시에서는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로 2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두 대학의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을 통틀어 올해 북한 관련 학과 최고 경쟁률은 7명 모집에 124명이 몰려 17.71대 1을 기록한 동국대 학생부종합전형인 'Do Dream 전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학교법인 동국대 신임 이사장에 성우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8일 오전 교내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327회 이사회를 열고 제41대 이사장에 성우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다.

성우스님은 1976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1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스님은 1993년 '법화경 방편품에 관한 연구(승사상을 중심으로)'로 철학박사를 취득했다. 1985년 군중법사 공군대위로 전역하고, 익산 관음사 주지, 군산 은적사 주지, 군산교도소 종교위원,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계종 나눔의 집 이사, 동국대학교 석림 동문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성우스님은 "본교 출신으로 항상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갑작스럽게 미려한 소납이 이사장의 소임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한신대 학위수여식 소규모로 진행

한신대학교는 교내 장공관 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소규모로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학부와 대학원 학사 749명, 석사 51명, 박사 5명 등 총 805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한신대는 앞서 지난 3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위수여식 행사와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한신대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참석을 원하는 졸업생 중 수상자만 참석하도록 해 행사를 진행했고, 졸업생 가족도 행사장 참석을 제한했다. 외빈과 축사는 영상으로 대신했다. /한용수 기자

공립유치원·학교 19개교 3월 신설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교 1교 등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3월에 공립 유치원과 학교를 19개원 신설해 개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설되는 학교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유치원 15개원, 강서구 내공진초 폐교부지에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1교, 대규모 주택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 1교와 중학교 2교다.

공립 유치원은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공립유치원 취원률 40% 달성을 위해 4가지 모델로 설립한다.

매입형유치원 8개원은 지난해 공모

와 선정, 교육부와 시의회 심의, 원아 모집 등의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3월 사립에서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 설립된다. 관악구 소재 매입형유치원인 청림유치원은 3월까지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4월 공립 전환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매입형유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구암유치원 등 5개원이 설립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립 특수학교는 지난 2017년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로 잘 알려진 공진초 폐교 부지 내에 서진학교가 설립 개교한다. 서진학교는 2014년 설립계획을 마련 한 후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6년 만에 개교한다. /한용수 기자

“2차원 소재 양자역학적 상호 작용 규명”

양희준 성균관대 교수 연구팀

성균관대학교는 에너지과학과 양희준 교수(사진) 연구팀이 2차원 적층 소재에 존재하는 슈타르크 효과(Stark effect)를 활용해 양자역학적 밴드갭 제어 및 초절전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기존의 실리콘 기반 소재에 활용되던 광학적, 전기적 방법은 원자층 두께의 2차원 소재에 존재하는 여러 양자역학적 상호 작용 및 밴드갭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이슈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원자 격자 각도 제어



를 통한 시료 적층 공정 및 양자역학적 공명 터널링 현상을 활용해 기존 분광학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2차원 반도체 소재의 전기적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슈타르크 효과가 크게 발현될 수 있는 2차원 적층 구조에서 전기적 방법으로, 직접 슈타르크 효과를 관측 및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미가 있다. /한용수 기자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삼육대 선정

삼육대는 KDB나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2020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 발굴(Customer Discovery) 중심 창업교육'을 국내 대학에 확산하는 사업이다. 고객 발굴은 고객 인터뷰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시장성이 없는 모델은 포기하고, 다른 시장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창업전략이다. 삼육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객 발굴 중심 창업교육을 대학 내 전공 교과목으로 1년에 2회 개설하게 됐다. /한용수 기자